

나는 1960년생이다. 사월에 온 나라가 들썩이던 그해에 태어났으니 올해로 예순을 훌쩍 넘겼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사흘 만에 부엌에 나가 아침을 지으셨다고 한다. 그것을 대단한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을, 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그때는 그게 흥이 아니라 자랑이었다. 여자란 자고로 몸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집안을 건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집안의 오래된 가훈 아닌 가훈이었으니까.

내가 어릴 적 우리 집 밥상에는 엄연한 순서가 있었다. 할아버지가 첫술을 뜨신 뒤라야 아버지가 수저를 들었고, 그다음이 오빠였다. 여자들은 부뚜막에 걸터앉아 식은 밥을 먹거나, 남정네들이 물린 상을 물려받았다. 어머니는 그것을 조금도 서러워하지 않으셨다. 아니, 서러워할 생각조차 못 하셨다는 편이 옳겠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요 여자의 팔자라고 믿으셨으니, 없는 서러움을 어디서 끌어다 느끼겠는가.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고, 그 밥상의 순서를 공기처럼 마시며 컸다.

시집을 가셔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오히려 더했다. 명절이면 나는 사흘 밤낮을 부엌에서 살았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남편은 사랑방에서 형제들과 술잔을 기울였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모습이 알미웠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고, 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그러셨을 터이니, 나 혼자 유난을 떤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그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손에 물이 마를 새가 없어도,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려니 하고 견뎠다.

그런데 견디는 데에도 끝이 있는 법이었다. 어느 해 추석이던가, 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억울해서였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명절이 즐거웠던 적이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 명절이 이토록 무서운 형벌이 되었나 싶었다. 그때 마침 부엌에 물을 마시러 들어온 남편이 그 꼴을 보았다. 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어설프다.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접시를 두 장이나 깨뜨렸고, 전을 부친다며 기름을 온 사랑방에 튀겼다. 나는 속으로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하고 혀를 찼다. 그러나 지금 와 생각하면, 그 서툰 손길이야말로 우리 부부가 나란히 서기 시작한 첫걸음이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 무너져 가던 나를 다시 세웠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아들을 장가보내고 딸을 시집보냈다. 나는 우리 아이들만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에게 늘 일렀다. “여자 혼자 부엌에 세워 두는 남자는 사내도 아니다. 네 각시가 상을 차리거든 너는 상을 물려라. 네 각시가 아이를 씻기거든 너는 빨래를 개어라.” 아들은 처음엔 픽 웃었지만, 지금은 제 처와 나란히 부엌에 선다. 며느리가 회사 일로 늦는 날이면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짓는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진다. 내가 못다 이룬 것을, 내 자식이 자연스레 살아 내는 것을 보는 기쁨이란 무엇에도 견줄 수가 없다.

딸에게는 또 다른 말을 해 주었다. “네 재주를 부엌에 다 파묻지 마라. 마당으로 나가거라. 세상으로 나가거라. 살림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네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딸은 제 일을 가졌고, 사위는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한다. 얼마 전 딸네 집에 갔더니, 사위가 아이를 업고 국을 끓이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이 하도 낯설고도 고마워서 한참을 문간에 서 있었다. 내 어머니가 보셨다면 세상이 망조가 들었다 하셨을 그 풍경이,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성평등을 두고 거창한 이야기를 한다. 법이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어려운 말들이 오간다. 나는 그런 것은 잘 모른다. 다만 예순 넘게 살아 보니, 평등이란 게 별것이 아니더라. 그것은 밥상 앞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누가 먼저 수저를 드느냐, 누가 상을 차리고 누가 치우느냐

나, 지친 사람의 어깨를 누가 먼저 알아보느냐. 그 사소한 것들 속에 평등이 있고 없고가 판가름 나는 것이었다.

존중이란 것도 그렇다. 대단한 존경을 바치라는 게 아니다. 그저 상대를 나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 보아 주는 것, 그의 고단함을 헤아리고 그의 꿈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존중이다. 배려란 것도 마찬가지다. 잠시 상대의 자리에 서 보는 마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뺨뺨을 슬그머니 나누어 지는 마음, 그것이 배려다. 나는 그 사소한 것들을 몰라서 짧은 날을 그토록 힘겹게 건너왔다. 아니, 나만 몰랐던 게 아니라 세상이 다 몰랐던 것이다.

이제 나는 남편과 단둘이 산다. 아침이면 남편이 커피를 내리고 나는 토스트를 굽는다. 저녁이면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짓는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무슨 규칙을 정한 것도 아니다. 다만 반평생을 함께 살아오며 서로의 고단함을 알게 된 두 사람이, 자연스레 이르게 된 자리다. 나는 이제 부엌에서 홀로 울지 않는다. 남편이 나와 나란히 그 부엌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지난봄, 남편과 뒷산에 올랐다. 무릎이 시원치 않은 나를 위해 남편은 제 걸음을 늦추었고, 나는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산길을 올랐다. 문득 짧은 날의 그 명절 부엌이 떠올랐다. 그때의 나에게 말해 주고 싶었다. 조금만 견뎌라, 세상은 기어이 바뀐다, 네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네 딸이 마당으로 나가는 날이 온다, 그리고 네 남편이 네 걸음에 제 걸음을 맞추는 날이 온다고.

세상은 더디게, 그러나 분명히 바뀌어 왔다. 나는 그 변화의 한복판을 온몸으로 건너온 사람이다. 부뚜막의 식은 밥에서 시작해 나란히 오르는 봄 산길에 이르기까지, 그 먼 길을 걸어왔다. 그 길이 순탄했다고는 못 하겠다. 그러나 돌아보니 험되지 않았다. 내가 삼킨 눈물이 내 자식들의 웃음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예순의 봄, 나는 이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도 같다. 그것은 누구의 아래에서도 위에서도 아닌, 그저 나란히 서는 일이었다. 부엌에서든 마당에서든, 산길에서든 세상길에서든,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나란히 걷는 일. 나는 그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배웠다. 늦었다면 늦었지만, 배웠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끝